

옥중서신 4

빌 1:12-30/ 더욱 전파되는 그리스도

빌립보서는 형식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이 많이 없다. 오히려 바울의 내면적 신앙의 간증,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 불리울 만큼 그가 겪고있는 삶이 고난의 폭풍속 항해와 같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잔잔한 기쁨을 독자들에게 선사하는 편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삶에 나타난 고난을 아픔 이상으로 보고있다. 그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 연구(1:12-30)

가. 바울의 고난과 복음(빌 1:12-14)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 이곳에서 언급된 바울의 당한 일은 무엇인가?

13 절로 미루어볼때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일로 행 16 장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구금과 그곳에서 벌어진 기적을 말하는 것이다.

2. 이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자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묵인하시는 이유를 알수 있는가?

빌 1:13-14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δεσμούς) 결박 행 16:26 - 장애물 행 20:23 - 한계 딘후 2:9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감당할 것이라고

3. 이 말씀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와 벗어날 길을 볼수 있는가? (고난 - 시험의 원인.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마 16:21-23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²²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²³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심.

눅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영광의 쌍둥이 형제 -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나. 고난과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인류를 위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바울은 자기의 고난(매임)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믿고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는가?

1. 히 11: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2. 사 53:3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다른 사람들의 짐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묵인하신다.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선구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김없이 마셔야 했던 그 잔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시대의 소망 218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支柱)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224 [헤롯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헤롯이 예수님 보고 싶은 이유 - 그 때 예수님이 아무말도 안 하신 이유 -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심. 정직한 경건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아파서 밀어낸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리워한다. 암에 몸이 들어오면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라. Balance 깨뜨리지 말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나 생각하라.]

다. 그리스도 전파를 위한 바울의 마음 자세(1:15-18)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올바로만 전파된다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의 체면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였다.

1.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은 일정한가? 절대로 일정하지 않다. 주님만 전파된다면.
2. 진심으로 복음을 전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드높여지는 일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3. 빌 1:17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귀하게 됨(1:19-30)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1. 바울이 끼었다고 말하는 두 사이는 무엇인가? 빌 1:22-25

²²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²³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²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²⁵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에서 고난과 존귀가 같이 있음을 경험으로 아는가?

3. 바울의 삶의 목적을 1:20 에서 찾아보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비교하여보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4. 빌 1:21 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공동번역)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경험을 참고해 보자.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BC702 년에 잠들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15 년을 더 연장되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임금중의 하나인 므낫세가 (BC699)태어난다. 그리고 그는 12 살에 즉위하여 52 년을 통치하며 많은 악행을 하였다.

5. 이런 경험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끼어있는 두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기도해 보자. 빌 1:22-25

²²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²³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²⁴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²⁵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 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 주고 기쁨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번역)

6.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인가? 빌 1:29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읍니다. (공동번역)

아름다운 결론

딤후 2:9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